

신년사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을 보내고 풍요와 희망 그리고 기회를 상징하는 무자년(戊子年)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해 새롭게 출범한 우리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루 빨리 원상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우리공단은 선박검사 등 정부대행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선박관련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선박에 관한 기술진흥에 이바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우리공단이 “해양안전토탈서비스기관”으로 성장해 나가는 원년의 해로 삼아 선박 검사를 비롯한 각종 기술서비스품질 향상, 지속적인 신규사업의 개발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현장애로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수행과 함께 다양한 대고객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와 혁신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과 효과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영투명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가족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모든 해양수산가족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8. 1. 1
이사장 김성규

